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광둥외어외무대학교	기숙사비	70만원/한 학기
파견지역	광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input type="radio"/>) 분할납부(<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1년	기타비용	매달 생활비 40만원

▣ 파견자 정보

성명		학과	관광경영학과
성별		학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1. 13.

파견자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저는 이미 HSK4급을 따고 교환학생을 간 관계로 레벨테스트를 거쳐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초급반과 본과반은 주4일수업으로 금요일에 수업을 안하지만 중급반을 포함해 그 외의 반들은 모두 주5일 수업이었으며 과목은 총 5개로 중합, 듣기, 독해, 쓰기, 말하기입니다. 중반의 경우 HSK4급의 수준이며 HSK5급을 준비하는 초중급의 수준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중3반이었는데 HSK5급의 수준이며 HSK6급을 준비하는 반이었습니다. 보통 중합선생님이 그 반의 담임이 됩니다. 중합과 독해수업 말고는 광둥외대 대학원생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과제는 매우 적은편이나 쓰기의 경우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꽤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어 수업 외에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영어수업도 들을 수 있으나 학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석은 5번 이상하면 F학점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본과수업을 제외하면 모두 혈령하게 제지하니 재량껏 여행이나 아플 때 담임선생님에게 얘기하면 융통성있게 배려해줍니다. 또,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중간고사의 비중이 매우 적고 기말고사가 정말정말 중요하니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이지만 1학기 교환학생을 했던 학생은 2학기에 휴학을 하고 따로 광둥외대에 등록할 경우 등록금이 20%감소합니다. 대략 140만원입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광둥외대는 광저우 시내가 좀 먼편입니다. 제일 가까운 역인 용타이역을 가기위해서 10분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합니다. 북문에 비교적 값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으며 와이마이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광저우는 중국의 최남단으로 홍콩과 기차로 두시간 거리이고 선전까지는 한시간 거리입니다. 베트남과 위도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며 겨울이 없습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의 우기여서 매일 아침과 오후4시쯤에 소낙비가 내리고 7월에는 장마처럼 2주내내 장대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파견자의 경우 옷과 캐리어에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비싸거나 아끼는 물건, 옷 등을 가져와선 안됩니다. 2학기에는 건기로 비교적 살기 좋습니다. 생각보다 2월말이 추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리스나 후드집업등 겹옷이 필요합니다. 간혹 영상10도까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12월 중순부터 간혹 추운경우가 있기 때문에 볼가을 겹옷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1주일도 안되기 때문에 겹옷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2-3벌 적당) 만약 필요하다면 타오바오 이용하면 됩니다. 또, 4월 우기가 시작되면서 바퀴벌레가 무조건 방안에서 나오게 될텐데 미리미리 방문 아래 스펀지 붙이시고 모기장 사야합니다. 바퀴벌레의 경우 1년내내 특히 여름에 매일 보니까 방충에 신경써야합니다. 바퀴벌레는 약으로 죽지않기 때문에 치약푼 물을 분사하면 즉사하니 참고하세요. 화장실에 자주 출몰하므로 구멍이란 구멍은 최대한 막으시고 배수구는 물넣은 비닐로 사용할 때 빼고는 막아놓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저우 판위구에 위치한 창릉파크는 꼭 가보세요. 동물원과 서커스가 아주 멋집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화장실 샤워부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도꼭지와 샤워기가 있고, 비누놓는 곳이 있습니다.

1평정도의 작은 샤워부스이나 샤워부스 문에 곰팡이가 잘 슬기 때문에 자주 락스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샤워부스 손잡이가 락스가 닿으면 녹슬기 때문에 화장실 전용 세제로 닦아도 문제없습니다. 수건걸이가 따로 없기에 직접 사서 부착하셔야 합니다.



이게 C동 전면입니다.

북문에서 들어와 MBA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지대가 좀 높아서 간혹 장마철에 홍수가 날 때, 피해가 적습니다. 실외기가 많은 것이 보일텐데 방마다 에어컨이 하나씩 있습니다.

30도로 맞추면 히터로 작동합니다.

16동은 히터작동이 안되는 에어컨이 많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와이마이 시킬 때 C동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MBA와 16동 사이에 있으며 17동 맞은편 위쪽에 있다고 하면 됩니다.

사 진 첨 부

침대가 있는 사진은 아쉽게도 제대로 있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침대와 책상이 각각개씩, 총2개가 있습니다. 먼저온 사람이 문쪽이나 창문쪽 침대와 그 맞은편에 책상을 선택할 수 있고 꽤 넉넉한 장롱이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 모두 이동이 가능하니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 방마다 화장실 쓰레기통과 방 쓰레기통 2개가 무료로 있습니다. 스탠드는 없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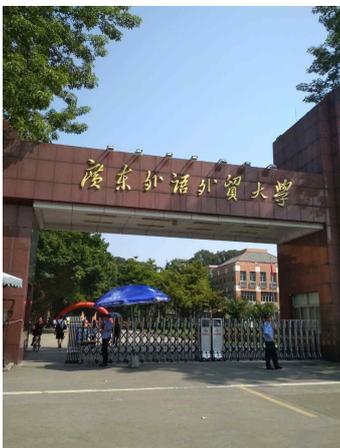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1학기동안 수업을 들었던 7교 강의실입니다.
빔프로젝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며
학생들이 일렬로 분단 나누지 않고 앉습니다.
뒤 쪽에 앉게되면 흑인 친구들이 많이
떠들고 있으니 중간정도부터 앉는게 수업듣기에
유리합니다. 보통 한국학생들은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에 많이 앉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인5명
정도 남미 친구들도 많아서 스페인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2학기에 세계문화축제할 때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음식부스의 경우
돈도 벌 수 있습니다. 400위안정도
공연하는 분들은 나중에 다른 축제에
조청받게되면 그 지역 관광도 가능합니다.
서안이나 충칭에 공연해주러 가는 공연팀이
있었습니다. 만약 광둥외대에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희망한다면 1년이나 2학기만 하는 걸
매우 추천합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행사입니다.



학교 정문입니다.
북문에 비해 상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년전 몇건의 학교안팎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현재 심엄한 경계를 서고있어 학교안의 치안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10시 이후에는 조심
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님께 광둥외대 가달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서 내려줍니다. 북문에 가고싶은
경우에는 직접 안내해줘야 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0만원정도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C동의 경우 취사가 안되지만 16동은 가능합니다.		
주인사항	불조심 사람조심 벌레조심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C동 기숙사 내부의 문입니다.

저기 손잡이 아래에 보이는 열쇠구멍에 열쇠를 놓고 두 번 돌려야 열리며,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 열지 못합니다. 반대로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못 엽니다.

매주 두 번정도 1층에 상주하시는 아주머님들이 청소를 하실텐데 원하지않는다고 문앞에 써서 걸어두거나 붙여두면 청소하지 않습니다. 저 문아래가 3센치정도 틀려있으니 주인하세요.



방안의 화장실입니다. 오른쪽에 세면대이고 정면에 변기가 위치하며 왼쪽에 샤워부스입니다.

락스로 자주 청소해주는게 벌레를 그나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기 상단의 스프레이는 학교근처 북문의 조이네고마트에서만 팝니다. 그런데 학생마트가 대부분 저렴하니까 이용해서 이것저것 사는게 경제적입니다. 세면대 아래는 곰팡이가 엄청나게 피어있으나 청소하기엔 너무 오래되었으니 건들지 말고 상하수도관과 이어진 바닥의 틈을 꼭 막으세요.

교환학생 파견 후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작년 한해 광저우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올 때에는 정말 정보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겪고 나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게 싫어서 남쪽인 광둥외대로 간 것이었는데 너무 덥고 햇빛이 강렬해서 피부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선크림은 덥고 짜증나도 꼭 발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광둥사람들은 모기나 벌레가 안 무는데 꼭 한국인들은 정말 많이 물렸습니다. 저또한 광저우충이라는 남방특유의 모기벌레에게 시달렸는데 학생마트에서 파는 방충스프레이를 피부나 옷에 자주 뿌려줘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어 좀 힘들었습니다. 광둥외대의 중국인들은 대체로 착합니다. 저는 처음 광저우 백운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나와준 글로벌소사이어티둥이리 친구와 1년 내내 매주 한두번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해져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몇몇 예의없는 택시기사를 말고는 대부분 (특히, 젊은 중국여학생)은 여전히 한국을 동경하고 좋아합니다. 비록 사드의 여파로 긴장하는 때도 있었지만 몇 달 지나니 중국인들의 호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둥외대는 광저우에서도 손에 꼽는 좋은 대학교여서 학생들의 수준이 꽤 높아 영어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어려움이 생겼으나 중국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할 때 영어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중국사람들이 생각보다 살갑고 외국인에게 잘 대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중국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퀄리티가 다 높았어서 외국학생을 위해 많이 신경쓰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천진외대에 단기어학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북방의 음식은 너무 짜고 향신료가 세서 입맛에 맞지 않았었는데 미식의 도시라는 광저우는 명불허전 제 입맛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부분에서는 힘든 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떠오르는 도시인 선전과도 가깝고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홍콩,마카오도 가까워서 간간히 여행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광저우는 무역에 매우 중점을 둔 도시임을 한껏 느끼기도 하였는데 광저우페어같은 경우 중국최대무역 박람회이고, 광저우역 근처 짝퉁시장인 찐시의 경우 전세계 짝퉁의 메카와 같아서 무역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매 학기 버디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는데 신청하면 1대로 중국인 친구를 맺어주니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둥외대의 한국어학과는 수준이 정말 높고 다들 착해서 만남의 자리가 생길 때 참석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교환학생에서의 뜻깊은 추억이 될 듯 합니다. 기숙사에서 공부만 하는 친구도 있고 북문 샤오카오에서 맨날 술먹고 시끄럽게 하는 친구들도 보았는데 둘 다 제가 보기엔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하고 여행하며 중국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끽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학기 중국에서 생활하니 역시 중국어의 수준이 빠르게 올라감을 느껴 여름방학에 5급을 수월하게 합격하고 현재 1년간 중국에서 생활한 것을 토대로 6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백운공항에서 만난 중국친구에게 한문장 말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1년새 간단한 회화는 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중국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벌레와의 전쟁을 빼면 모든 게 완벽했던 광저우 생활이 벌써 많이 그리워집니다.